

1940년대 在滿朝鮮族文學 研究의 문제점

오 양 호*

차 례

- | | |
|-------------------|----------------------|
| 1. 滿洲移民文學期 설정 문제 | 4. 韓國詩에 나타나는 滿洲行 모티프 |
| 2. 1940년대와 滿洲移民文學 | 5. 滿洲移民小說과 그 작품성 |
| 3. 亡命文學, 移民文學의 개념 | 6. 마무리 |

1. 滿洲移民文學期 설정 문제

주지하듯이 한국의 문인들이 간도·만주를 체험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20년대의 최서해부터이다. 그후 강경애의 소설 등을 통해서 간도·만주가 여전히 한국문단을 형성하는 특별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확실한 지방문학의 성격을 띄고 문단 전면에 떠오른 시기는 『북향』이라는 동인지가 간행되면서부터이다.

『북향』 동인지는 1935년 12월에 창간호가 나왔고, 이듬해 1936년 8월 1일에 제4호가 발행되었던 재만조선문인들의 종합 문예지이다. 창간호에서 4월호까지 발표된 작품수를 집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北鄉』 2, 3, 4호는 필자도 소장하고 있다. 표는 채훈의 『재만한국문학연구』, 김

2 한국문학논총 제 30 집

호수	소설	시	수필	평론	회곡	학생문단
1	3	6	1	2		시 약간편
2	2	10	3	4		시 8
3	3	10	2		1	시 3
4	3	7	3			시 1
합계	11	33	9	6	1	12

1년 사이에 소설 11편, 시 33편 수필 9편 평론 6편, ‘학생문단’란에 발표된 작품은 12편이다. 여기서 학생 작품은 제외하더라도 8개월 사이에 60편의 작품이 생산된 셈이다. 이것은 당시 그 곳의 문인이 상당히 왕성한 문학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이 동인지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한 문인은 대충 잡아 기십 명은 될 것이다.²⁾

이렇게 시작된 북향문단이 1940년대에 가서는 장르별로 본격적인 예술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요자료를 소개하면 이렇다.

- 安壽吉 외 6명, 『싹트는 대지』(1941. 11)
- 柳致環 외 10명, 『滿洲詩人集』(1942. 10)
- 金達鎭 외 12명, 『在滿朝鮮詩人集』(1942. 10)
- 安壽吉 창작집, 『北原』(1944. 2)
- 安壽吉, 『北鄉譜』(장편. 1944.12-1945. 4)

이밖에 책명만 전하는 『在滿隨筆集』이 있고, 『滿鮮日報』 문예란 소재의 상당량의 시, 소설, 평론 등이 있다.³⁾ 또 아직 검증된 바 없지만 김창걸의 상당수 작품이 이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박영준의 「쌍영」(1941) 역시

은샘, 1990, p.129. ‘학생문단’란의 통계는 필자의 조사에 의함.

- 2) 한 작가가 1년 사이 4작품을 썼다 하더라도 15명이나 된다. 예로 『북향』 제2호 목차에 나오는 문인을 보면, 巖城, 晚湖, 金裕勳, 李學仁, 千青松, 姜敬愛, 趙水影, 李延源, 崔榮翰, 金圭銀, 安壽吉, 朴榮濬, 孤笛, 晦城 등 14명이고, <학생문단>과 <북향시단>에 작품을 발표한 사람이 8명이다.
- 3) <만선일보> 문예란 시는 필자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연구』 참조).

이 시기 작품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한국의 어느 문학사도 위의 자료들을 문제삼은 바 없다. 다만,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가 문제의 시기에 만주·간도에서 간행된 몇 개의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소략하나마 문제의 시기를 이 문헌학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학사는 趙東一의 『한국문학통사』뿐이다.

2. 1940년대와 滿洲移民文學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간도, 만주란 지리적 공간은 지리적 공간 이면서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민족의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고, 간도와 만주라는 장소는 기실 지리적 위치와 범위가 다른데, 문학작품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나타난다.

… (전 략) …

밭잃고 집잃은 동무들아
어데로 가야만 좋을가 보냐

피나리 붓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오소
北間島 벌판이 좋다더라

쓰러린 가슴을 움켜쥐고
白頭山 고개로 넘어간다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 넘어
북간도 벌판을 헤매인다

… (후 략) …

<신아리랑>에서4)

4) <신아리랑>, 『항일민족시집』(민족학교 편, 1971), pp.64~65.

이 민요의 기본 지상은 불만스런 현실을 박차고 나가려는 시의식이다. 반도에서 내몰릴 형편에 놓인 동무들과 자식없는 부모에게 고향을 버리고 북간도로 오라는 권유가 3음보격 가락으로 직설화되고 있다. 붓짐을 지고, 감발을 하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북간도 별판으로 오라는 내용이 가락과 무리없이 맞아 떨어진다.

짧은 가사이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의 심각한 사정과 그런 현장을 박차고 나와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의식이 너무 선명하여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북간도는 망명지였고, 그 망명지에는 여차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분노에 찬 동포들이 살던 곳이다. 감발을 하고서 북간도 별판을 헤매인다는 말 속엔 그런 노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요에는 한 시대를 피압박민으로 살며, 어디론가 터져 나가야 했던 민족정서가 간도란 지역과 결합되어 있다. <신아리랑>이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절실히 와 닿는 것은 이와 같은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민요 속의 '북간도 별판'은 실제 북간도 만이 아니라, 백두산 너머에 있는 넓은 별판 전부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그 땅은 만주가 된다.

간도는 보통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과의 상류 장백산 일대를 가리키며, 우리가 보통 간도라고 말하는 곳은 두만강 건너편 동간도를 지칭한다. 만주는 중국 동북부 지방, 심양, 길림, 흑룡강 삼성으로 된 면적 80만 평방 킬로미터의 대륙인데, 현재의 공식 명칭은 東北三省이다. 이렇다면 만주와 동북 삼성은 같은 공간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고, 간도는 특히 두만강 건너의 땅으로 만주 대륙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이런 지역들이 한국문학 속에서는 막연히 간도, 만주로 불린다. 이 민요의 경우도 백두산 너머의 넓은 땅을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북간도라 부르면서 그곳이 신천지라고 깨우친다.

1937년에 발표된 池奎文의 소설 <北國의 여인>을 읽다 보면 그 도입부에 이런 지문이 나온다.

간도는 전부가 쌀밭이다.

간도는 전부가 기름진 땅이다.

그 넓은 기름진 땅에는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삼년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을 수가 있다.
 몇 해 안가서 벳 백이야 못하겠느냐!
 그렇게되기는 바라지 않았읍니다마는 너무도 절박한 생활이어서 뱃속이 좀
 편할가 하여 떠나지 않았겠읍니까. 그래도 이번 길에는 밭 한 두 가리 는
 두어 마지기 살 돈만 벌면 흥타령을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바라지
 않은 것도 아니지요.⁵⁾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의 땅은 한반도의 네 배나 되는 평야이다. 전국토의 70%가 산인 한반도에 비하면 만주 천지는 그야말로 일망무제의 광야이다. 그런 광야가 無主空山이라고 믿었던 게 당시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모두 만주나 간도를 동경했다. 소설 <북국의 여인>도 그런 모티프에서 출발하고 있다.

간도를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고 살 길 찾아 떠난다는 문학적 소재는 李光洙의 <流浪>에서부터 나타났고, 安壽吉의 <北鄉譜>에서 끝났으니⁶⁾ 간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북간도별판이 좋다더라’와 같은 소문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유형, 둘째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북국의 여인>처럼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면서 다시 고국을 생각하는 유형, 셋째는 간도나 만주에서 새 고향을 건설하자는 유형,⁷⁾ 넷째는 일본의 만주정책에 의해 이주하고, 그들의 보호하에 농업에 종사하는 유형이다.

3. 亡命文學, 移民文學의 개념

망명문학은 국권회복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망명이란 말이 혁명의 실패 또

-
- 5) 池奉文, <北國의 여인>, 조선문학, 1937. 1~6, 閔玕基 편, 「韓國流移民小說選集」(계명대학출판부, 1989), p.204.
 6) 이광수의 <流浪>은 1927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다가 미완으로 그쳤고, 안수길의 <북향보>는 1945년 4월까지 「만선일보」에 연재되었다. 그리고 <북향보>에서는 어떤 간도이주 모티프도 나타나지 않는다. 간도내의 이주문제만 나타나고 있다.
 7) 오양호, 「韓國文學과 間島」(文藝出版社, 1988), pp.114~138(<北鄉譜研究> 참조).

는 그 밖의 사정으로 제 나라에 있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는 것이라 할 때,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중 국외로 탈출한 사람의 태반이 이런 인물들이다. 문학의 경우 李陸史, 尹東柱, 趙抱石, 李彌勅, 韓黑鷗, 安壽吉, 姜敬愛, 「在滿朝鮮詩人集」, 「滿洲詩人集」에 시를 발표한 시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예가 되겠다. 이런 문인과 작품 중 상당수는 그 주제를 고향 회귀 내지 고향을 상실하고 혹독한 생존 조건이 주어진 타국에서 체험한 실향의식과 유민화 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이 밖에 崔曙海의 <故國>, 韓雪野의 <과도기>, 許俊의 <잔등>, 安懷南의 <鐵鎖 끊어지다>, 李箕永의 <대지의 아들> <신개지> 속에는 만주 등지를 떠돌다가 귀향하는 모티프 또는 에피소드가 자주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포석의 <洛東江>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성운은 낙동강 하구인 구포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보통학교, 도립간이 농업학교 등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고 군청농업조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민족 운동에 뛰어 들었다가 1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 후 그는 고국을 떠나 5년 동안 서북간도, 연해주,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한다. <낙동강>의 도입부는 이런 주인공의 귀향이 감동적으로 묘사되는 데서 시작된다.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낙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 넘쳐 흐르네
 흐르네—에—헤—야
 ……………」

경상도의 독특한 지방색(地方色)을 띤 민요(民謠) 「널리락 조」에다가 약간 창가조를 섞은 그 노래는 강개하고도 굳센 맛이 띠어 있다. 여성의 음색(音色)으로서는 킷기가 과하고 음률(音律)로서는 선(線)이 좀 굵다고 할 만한, 그러나 맑은 로사의 육성(肉聲)은 바람에 흔들리는 강물·수결의 소리를 누르고 밤 하늘에 구슬프게 떠 돌았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애정을 느낀다.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회귀본능과 같은 것이다. 이 場所愛(topophilia)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현실적 삶이 불행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삶의 인식치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남녀 주인공은 오랜 타향(타국)살이에서 자신이 태어난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에서 유리됨으로써 장소애의 상실이란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귀향으로 원상회복된다. 위 인용문이 몽상적 동경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연유에 근거한다.

3·1운동은 민족독립 운동의 권화였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뿔뿔이 해외로 망명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박해가 3·1 운동으로 하여 결과 속이 다른 식민지 정책으로 나타남으로써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1920년대는 박해와 망명으로 시작되었다. <낙동강>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임화는 이 소설의 重刊辭에서 일찍이 이렇게 썼다.

流浪하는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記錄, 祖國에 대한 비길데 없는 愛情, 自由에 대한 늘 수 없는 希願, 作者는 小說家이기보다는 더 많이 우리의 民族詩人으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抱石兄이 祖國을 떠난지 於焉 十八年, 그가 夢時間에도 그리든 祖國에 自由가 차져오려는 날, 아들도 兄은 異域에서 도라오지 않았다. 하루 바삐 많은 收穫과 健康한 몸으로 도라오기를 바라는 것은 나 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⁸⁾

<낙동강>의 주인공 박성운은 귀향한다. 그러나 이 소설을 쓴 실제의 망명객 조명희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1942년 타향에서 객사했다. 작가의 현실적 삶이 문학적 형상화로 나타났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 둘이 일치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낙동강>과 그 작가의 생애에서 亡命文學의 전형적 예를 본다.

민족운동에 신명을 바쳤으나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이역을 헤매이다 병든 몸으로 귀향하는 모티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서사적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주·서북간도·송화강과 같은 대륙적 이미지가 낙동강과 대립되면서 한 혁명가의 비극적 귀향이 극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8) 林和, <洛東江> 重刊辭, 주 25)와 같은 책, p.108.

망명객들의 품 속에 숨겨나갔다는 金東煥의 <국경의 밤>(1924)도 비극적 역사에 부딪친 한 개인의 원혼을 위무하는 모티프가 지배하는 시집이다.

北國에는 날마다 날마다 눈이 내리느니
灰色하늘 속으로 휘눈이 허부슬 때마다
눈속에 파묻히는 허—연 北朝鮮이 보이느니

아하, 無事히 건너슬가
이 한 밤에 男便은
豆滿江을 탈업시 건너슬가?

이런 시의 발상은 분명히 어두운 역사와 침울한 계절과 국경지대의 서러운 민중사에 그 뿌리가 박혀 있다. 끊임없이 떠나는 시의식이다. 떠나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 올 수도 없어 거리의 객이 되어 고국과 고향을 생각한다. <松花江의 뱃노래> 역시 그런 시이다.

여기는 松花江, 강물이 운다야
에잇 에잇 어서 노저어라 이 배야 가자
강물만 우두냐
장부도 따라운다.9)

移民文學은 이민간 사람들이 이민의 땅에서 생산한 문학이다. 망명문학이, 뿌리는 한반도이나 그 반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족의 삶을 밖에서 문체 삼는다면, 이민문학은 그 뿌리를 이민 간 땅에서 내려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 趙明熙의 <洛東江>은 고향 구포벌로 주인공이 돌아 오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安壽吉의 <北鄉譜>(1944)나 창작집 「北原」(1943)에 수록된 거개의 소설들은 만주·간도의 개척민촌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李箕永의 <大地의 아들>(1939)도 “지평선과 한울이 맞부튼 돌 가운데 느룬나무 한 주가 웃독섯다”는 말로 소설의 첫회가 시작되어, 그 대미는 “세사람은 음식집을 나와서 우선 북능(北陵)을 구경하기로 하고 마차를 집어탔다.

9) 金東煥, <海棠花>(大東亞社, 1942), p.145.

…… 길림보다도 변화한 시가지를 마차 위에서 달리는 기분은 유쾌하였다”는 봉천시의 배경묘사로 되어 있다. 배경이 한반도가 아니고, 이야기의 줄거리도 滿洲開拓談이다.¹⁰⁾

滿洲·間島の 이민문학은 1930년 동인지 「北郷」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창작집 「싸트는 大地」(1941) 합동시집 「在滿朝鮮詩人集」(1942) 「滿洲詩人集」(1942) 등으로 이어지면서 문학적 위상이 잡혔다.

그렇다면 「北郷」 「싸트는 大地」 「在滿朝鮮詩人集」 「滿洲詩人集」 등은 어떠한 문학적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당해 문학을 묶는 책의 서문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 네 예술로지의 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① 인간은 삶의 지배를 받되 그 삶이 인간을 살이지못할 때 그 인간은 비로서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 삶을 지배할 새로운 터전을 닦거야 할 것이다. 새해맞는 인간은 모름지기 황폐한 옛 터전에 새로운 터전을 닦음으로써……!

삶을 저주하는 인간아!

팔에 힘을 주어 삶을 잡고 문허진 성터로 나아가지 않으려는가?

새터를 닦고려!

巖城¹¹⁾

② 나는 이 작품집을 읽어가는데 그 대부분의 작품에서 ‘前期墾民’의 참담한 생활상을 回顧追憶하는 一種의 ‘移民受難記’가터도 느꼈다. 이러한 意味로 이 작품집은 滿洲開拓史의 序說이요, 먼 將來에는 잊지 못할 貴한 文獻의 價値도 가지게 되리라고 믿는 바이거니와, 한 편으로는 先驅者로서의 ‘墾民’ 開拓者로서의 先進을 위한 大辯이요 雪憤이며 同情에 넘치는 感謝의 文字이기도 한 것이다. 이 點으로 보면 이 一篇은 滿洲曠野의 진흙구덩이를 후벼파고 도다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先住 開拓民이 피땀을 흘려가며 파고 심고 거두어서 뷔인 막지를 채운 最初의 文化果라 할 것인가 한다. 나의 이러한 所懷는 넘어나 感傷의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읽어가는데 字字句句에 그네 開拓者의 血汗이 서려운 듯한 敬虔한 느낌 업지 안했든 것도 事實이다.¹²⁾

10) 영인본 原本 新聞連載小說 全集 3(김은샘, 1987), p.143.

11) 「北郷」, 제2권 1호(北郷社, 1936. 1), p.1.

③ 化粧이 매끈치 못하다면 올든 凍土를 가르치겠다. 목소리가 거칠다면 密林과 平原을 보이겠다. 이제 不幸하였든 憂-즈는 天衣를 입고 雪原우으로 도로이카를 달려도 좋을 것이다.

南風이불면 꽃씨를 뿌리겠노라.
눈이 나리면 설매에 무지개를 달겠노라.¹³⁾

④ 우리가 滿洲를 사랑하는 心情은 이땅 이나라의 大氣를 呼吸하고 살아 온 우리가 아니면 想像하기도 어려우리라. 남이야 무어라 하거나 滿洲는 우리를 길러준 어버이요 사랑하여 안어준 안해이다.

이 나라의 單調로운 倣어한 地平線 紅柿가치 새빨간 저너해 모양 새 업는 우리 部落의 土城 머언 白楊나무 숨 적은 개울물 하나 하잘것 업는 돌덩이 흙덩이 하나 하나에도 우리네 歷史와 傳說과 限업는 愛情이 속속 드리 숨어있다. …… (중략) ……

長白靈峰의 품미를 의지하고 살은 우리요 黑龍長江의 울타리 안에서 살은 우리가 아닌가? 송화강언덕 杏花村에 情드리고 살고, 海蘭江 白沙場에 넛 이야기를 주으며 귀로 「오랑케고개」의 傳說과 눈으로 「勃海古址 六官의 남은 자취 주춧돌도 늘근것」(尹海榮 氏)을 듯고 보고 살아온 우리다. …… (중략) ……

시들지 안는 歲月을 차저와서 健全한 生의 塔을 짜호려는 우리들의 祈願이 이땅 이 나라의 한울과 별과 개울과 密林과 바람과 部落 속에 서리어 잇는 것을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 누가 是認하지 아니하라?¹⁴⁾

인용 ①의 요점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 삶을 지배할 새로운 터전을 닦거야 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동인지 『北鄉』이 간행되던 간도 용정은 고국의 고향과는 수천리 떨어진 타관이다. 고향은 이미 빼앗긴 땅이라 쉬 갈수 없으니, 여기서 새터를 닦고 새 삶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문인은 열사도 아니고, 義士도 아니다. 열사와 의사 같은 문인도 있다. 만주와 간도란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滄江 金澤榮, 丹齋 申采浩, 이육사, 윤동주 같은 문인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췌서해는 살 길 찾아 간도까지 흘러간 유랑문인이고, 안수길 역시 아버지 따라 만주로 간 사람이다. 유치환이나 박계주도 반도보다는 ‘만주가 좋다’기에 가족

12) 申瑩澈 編, 在滿朝鮮人作品集 『썩트는 大地』(滿鮮日報社, 1941, 新京特別市), p.2.
13) 金朝奎 編, 『在滿朝鮮詩人集』(藝文堂, 1942, 延吉), p.9.
14) 朴八陽, 『滿洲詩人集』(第一協和俱樂部, 1942, 吉林市), pp.2~3.

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건너갔다¹⁵⁾고 했다. 문인들의 이런 행동은 이 문인들의 작품 앞에 놓인다. 移民은 말 그대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이다. 동인지 『北郷』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토양이 바로 여기다. ‘팔에 힘을 주어 삼을 잡고 문혀진 성터로 나아가지 않으려는가. 새터를 닦으려고 외치고 있다. 『北郷』의 문학적 의미는 이런 반문 다음에 온다. 따라서 인용문 ①은 당시의 현지 사정을 가장 정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北郷』에는 매호마다 투고작품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온다. 그런데 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移民二世의 학생들이다. 그 중에는 이런 시도 보인다.

앞뜰에 종달새 비비배배
뒤통산 썩국이 썩국썩국
엽집 농부 소꿉고 밧가리 가나
에헤라 봄이로구나 새살림이로구나¹⁶⁾

여기 나오는 ‘새살림이로구나’는 이민의 새살림, 불안하던 형편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자리잡혀 가는 형편을 말할 것이다. 이것을 당시의 시대상 또는 그 땅에 세워진 신흥국가와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인용된 구절이 현실의 한 단면을 순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런 진술이 세상사를 외연으로 인식하는 소년의 눈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밝은 점을 본능적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 할 때, 이런 외연성과 시대상을 연결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무리이다. 성급한 일반론이기보다 귀납화의 단초가 되는 예이다.

새터를 닦는다는 의미는 ② ④의 인용문에도 나타난다. “선구개척민이 피땀을 흘려가며 파고 심고 거두어서 뉘인 박아지를 채운 최초의 문화과”(②), “만주는 우리를 길러준 어버이요, 사랑하여 안어 준 안해이다”(④)는 말이 모두 같은 의미이고, 새터를 닦는 意義의 강조이다. 이와 같이 移民文學은 그 일차적 특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그것도 현지 사정에 맞게 해결하고, 개척해 가려는 의지를 내용으로 한다.

인용문 ②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는 ‘移民受難期’ ‘墾民’ ‘진흙구덩이를 후벼파

15) 柳致環, 『구름에 그린다』(신홍출판사, 1958), p.35.

16) 尹貞淑, <봄>(『北郷』 제2권 1호), p.17.

고 '개척자의 血汗'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단어는 소설집 『싸트는 大地』가 이민개척사에 바쳐졌던 당시의 간도문단의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싸트는 大地』에 수록된 작품들이 만주 정착을 위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문제삼거나(<새벽>, <暗夜>, <秋夕>), 수답개척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이주민이 거친 자연을 극복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流氓>, <密林의 여인>, <草原>, <祭火>)을 이런 서문이 작품집의 특성으로 정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문을 쓴 염상섭이 <萬歲前>고, <三代>를 썼던 리얼리스트란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용 ③은 예언이다. “남풍이 불면 꽃씨를 뿌리고, 눈이 내리면 설매에 무지개를 달고 설원을 달리겠다”고 노래함이 그러하다. 물론 이런 현사가 시집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문학적 발상이 이민들의 이주문제와 관련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초의 만주·간도는 무주공산의 황야였고, 그 광야는 인간사의 험악한 힘의 논리와 관계없이 우리 앞에 던져진 신천지였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기적 같이 농토를 일켰고, 마을을 만들었고, 2세를 낳았고, 학교를 세워 새 세상의 꿈을 키워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점은 만주·간도의 이민의 정사로 잘 나타나는 바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인용한 윗 글 넷이 모두 그 때 그 현장에서 쓰여지고 발표되고 읽혔던 엔솔로지들의 서문임을 감안한다면 작품 점검의 이전에 꼭 전거로 삼아야 할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으로도 저간의 이민문단의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 ④는 40년대 초의 滿洲 事情을 어느 항보다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만주국이 세워지고, 우리 민족도 그 나라의 한 구성분자가 된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상황을 우리 민족 나름으로 수용하면서 만주를 사랑하고, 그 땅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주는 우리를 살아 남게 해준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아내처럼 우리를 받아들였으며, 그 땅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백두산(장백산), 흑룡강, 송화강, 해란강 등은 渤海와 高句麗 같은 우리 민족의 흥망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 역사성으로 하여 “이 땅 이나라의 하늘과 벌과 개울과 밀밭과 부락 속에 서리어 있는” 새 생활에 대한 기원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만주국의 국민임을 자랑

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는다. 그 땅에 대한 주인의식 때문이다. '오랑캐 고개의 전설' '발해고지 六官 남은 자취'와 같은 말의 내포가 그렇다. 사실 발해나 고구려가 자리 잡았던 대륙의 땅을 염두에 둘 때, 만주는 낯선 황야가 아니라 한때 영화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꿔졌던 낯익은 민족 대망의 땅이다. 우리 민족의 한 기질인 상무정신과 열린 큰 배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성격이 아닌가.

사실 일제 강점기 만주·간도의 이민은 그 성격이 똑 같지는 않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제 이민을 간 사람이 있고, “북간도 벌판이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자기발로 찾아간 이민도 많다. 그러나 만주나 간도로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와 같은 자발적 이민들이다.

김택영으로부터 시작되어 신채호, 김창걸, 김학철로 이어지는 문인들의 행적은 독립군의 사상적 이민과 맥을 같이 한다. 최서해, 강경애, 안수길, 박계주, 서정주, 유치환과 같은 문인의 만주행은 닫힌 사회, 막힌 현실의 탈출구로 이루어진 문학적 이민으로 그 곳에서의 체험과 삶을 자기 나뭇으로 성육시켜 우리 문학사에 독특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필자는 1940년대 초 만주·간도에서 쓰여지고, 잊혀지고, 발표된 문학 작품들을 亡命文學과 移民文學으로 양대별하고자 한다.

4. 韓國詩에 나타나는 滿洲行 모티프

P.A. 소로킨은 전쟁, 기근 같은 것을 대재난이라고 했다.

논증이 필요 없겠지만, 1930년대는 우리에게 대재난의 시기였다.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제 2차 세계대전 같은 역사적 사건이 그 시대를 주권 잃은 약소민족으로 살던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파상적으로 몰고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재난을 피해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났다. 우리 민족의 경우 만주와 간도가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P.A. 소로킨은 이러한 재난이 인간들의 정서적 생활(Emotional life)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¹⁷⁾ 1940년대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전쟁 당사국이 되었고,

그 전쟁으로 우리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아니라 “문전의 沃土는 어찌 되고/쫓박의 신세가 원말인가”와 같은 민요처럼 온갖 수탈 속에 민족 개개인은 날로 영락해 갔다.

192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우리 민족의 만주 및 간도 이주는 이런 대재난에 대한 반응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현대 문학에서 이런 문제가 특징적인 소재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소설에서부터이다. 崔鶴松의 문학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1930년대로 오면서부터 이 문제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의 여러 장르로 확대된다. 시에 나타나는 예를 보자.

이서방 떠난 날 흐른 눈물이
 마르기도 전 김서방 또 짐꾸리네
 삼천리 강토라 넓드라만
 오척의 친구도 돌 곳 없다네

넘기는 백두산 원한에 닳고
 건너는 압록강 눈물에 부니
 닥치는 요동벌 한숨에 차네¹⁸⁾

민요는 작자미상의 시이다. 개인적 체험보다 집단적 체험이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석영해가 ‘쫓기는 이’라 하지 않고 <‘민요’ 쫓기는 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시가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다중의 문제란 의미일 것이다. 쫓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도 흔해서 굳이 창작시라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민요’○○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 “삼천리 강토라 넓드라만/오척의 친구도 돌 곳 없다네”라고 탄식하면서 김서방, 이서방 할 것 없이 모두 압록강을 건너 만주나 간도로 떠나고, 백두산도 원한에 닳아 간다는 사연이다. 민중의 가사이고, 가락 또한 4음보나 민중생활의 리듬임에 틀림없다. 민요의 형식을 빌어 민중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

17) Pitirim A. Sorokin 교수의 『Man and Society in Calamity』가 간행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이다. 그는 이 저서에서 전쟁, 혁명, 기근(Famine), 질병(Pestilence) 등이 인간의 정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18) 석영해, 『‘민요’ 쫓기는 이』, 동아일보, 1929. 11. 6.

가구야 말려느냐 가구야 말어
너는 너는 참 정말 가구야 말려느냐

이민이라 널 아침 첫차에 실려
이역천리 저 북만주 가구야 말려느냐
..... (중략)

아아 다 없고 황막한 그 땅 네 얼마나 쓸쓸하라
철철 추위 혹독한 그 땅 네 얼마나 피로우라

사시 장장 가여운 네 생각 내 어찌 견디리
자나 깨나 그리운 네 생각 내 어찌 배기리¹⁹⁾

‘월이’란 이름은 ‘김서방’ ‘이서방’처럼 친근감을 준다. 고유명사지만 두어 세대 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인심후한 여인의 이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민족 현실을 보며 속을 알아야 했던 비관적 현실이 <‘민요’ 쫓기는 이>처럼 소박하게 나타나 있다. 만주는 황막하고 넓은 땅이다. 그런 땅에 겨울이 오면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야할 월이네니 그 신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것이다. 떠나고 보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겨울의 이미지와 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아 다 없는’, ‘내 어찌 견디리’, ‘내 어찌 배기리’ 같은 자칫 감상조로 처질 문맥도 튀어오른다. 배길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배겨나가야 한다는 다짐이 설의법으로 점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의 형상화가 이런 몇 편의 작품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가 많다. 몇 작품을 더 고찰해 보자.

눈 덮힌 철로는 더우기 싸늘하였다.
소반 한 귀통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 냄새가 난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 듯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창을 쿨어뜰으며 몸부림친다.

<北方的 길>²⁰⁾ 전문

19) 이찬, <북만주로 가는 월이>, 『중앙』 1936. 6.

20) 오장환, 『현사』(1939, 경성), p.29.

영이 영을 불러 밀어올 주고 받는 곳
길이 눈썹틀러 비꼬기만하고

차는 갓시집은 새앗시 같이
그 서술에 옮겨놓은 자옥도 조심겨워……

북으로 칠백리 나르—한 여로에
시름은 조름인양 살포—시 안겨드노니

아하 가도 가도 무건눈두던 거드러주는 청신한 풍경도 없고
가도가도 막막한 가슴 열어주는 호활한 전야도 없고

울고 싶다 이 鬱鬱히 「먹이쫓는 北方의 길」이여
그러나 차륜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제—의무를 반복하는구나.
〈北方의 길〉²¹⁾ 전문

北쪽은 고향
그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
머언 산맥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다시 풀릴 때
시름 많은 북쪽하늘에
마음은 눈감을 줄 모르다

〈北쪽〉²²⁾ 전문

1930년대의 한국시를 대표하는 시인의 반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장환, 이용악, 이찬의 작품이다. 이 세 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우선 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 앞의 두 편은 똑 같이 <북방의 길>이고 뒤의 것은 <北쪽>이다. ‘북쪽’과 ‘북방의 길’이 꼭 같은 말은 아니나, 의미가 북에 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 또 당시의 현실—북방에의 이민 문제와 얼마나 심각하게 연관되었는가란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는 이 세 편의 시를 지배하고 있는 떠남의 모티프이다. 그리고 그 떠남은 덜고 불확실하다. 오장환의 <북방의 길>은 눈이 덮힌 싸늘한 길위에 떨어진 송아지처럼 살아 온 농민 일가이고, 이찬의 <북방의 길>도 짐승처럼 먹이 쫓아 떠나는 북방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21) 이찬, 『분향』(1938, 경성), pp.48~49.

22) 이용악, 『분수령』(1937, 동경), p.10.

막막한 칠백리란다. 칠백리가 단순한 이정으로 들리지 않는다. 시대고의 이미지가 겹쳐진 아득한 시공, 북쪽으로 터져있기 때문이고 '먹이 좇아'란 말이 겨울 광야를 헤매는 한대 지방의 금수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北쪽>의 서정적 자아도 바람이 얼어 붙고, 풀리는 망막한 동토의 어딘가로 팔려간 여인이다. 낙백한 영혼이 되어 구천을 떠들, 눈감을 줄 모르는 수심이 동적 이미지 '바람'과 결합되어 끝없는 표박의 세월이 기다릴 것을 예고한다. 이 시가 긴장감을 주는 것은 짧은 시행 속에 내재한 이런 대립구조 때문이다.

한편 '북쪽=여인이 팔려간 나라'란 동식으로 나타난 시의식은 무엇인가. 또 '그 북쪽이 고향'이란 시행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당시의 많은 민초들이 살길 찾아 택하던 북방행의 현실과 연결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남도, 특히 경상도에서는 딸이 많으면 몇 백원, 적으면 몇 십 원을 받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 못사람에게 정조를 짓밟히며 지냅니다. 이것을 가까이는 조선 전국 유곽에서 볼 수 있으며, 멀리는 일본의 북해도, 눈 쌓인 화대, 바람 거치른 만주 벌판에서, 이 가련한 성육에 주린 이리 앞에 떠는 비둘기 같은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²³⁾

은갓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 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 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메이자

술을 부어 남실 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던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타듯 전대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니

두 낮 두 밤을 두르미처럼 울어 울어

볼 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²⁴⁾

앞의 인용문은 실제 상황의 보고문이고, 뒤의 것은 시인의 창작물이다. 그런

23) 유광렬, <농촌여성을 전망하며 1>, 『조선농민』, 1927. 9.

24)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이용악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8, p.95).

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글이 서로 일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황과 내용이 조금도 다르지 않지 않은가. 팔려간 여인들의 기구한 삶이 같은 시각에서 문제되고 형상화 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 글의 남도가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칭한다면, <전라도 가시내>는 바로 그 남도의 여인이다. 만주로 북해도로 화태로 팔려 갔다면 그 여인을 황량한 만주땅 객주에서 만난 낙담이 <전라도 가시내>의 중심 포에지이다. 청루 홍루에 몸을 던진 것을 보고 분홍대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란 시행 속엔 그런 비극적 현실이 압축되어 있다.

5. 滿洲移民小說과 그 작품성

<開東>이라는 염상섭의 소설이 이민문학기에 만주에서 발표되었다고 하고, 김창걸 단편소설선집(료녕출판사, 1982)의 작품이 해방전 것이라고 하며, 박영준의 <雙影>이라는 소설이 만선일보에 연재되었지만(1940~), 아직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박계주의 창작집 『처녀지』(1948)에 수록된 작품 역시 대륙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민문학기의 작품이다.²⁵⁾

리얼리스트로서의 염상섭, 항일문인으로서의 김창걸, 이농형 농민소설 <一年>의 작가로서의 박영준 등이 만주·간도 등지에서 발표한 이런 소설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 이런 소설들은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여기서는 우선 『썩트는 대지』, 『북향보』를 중심으로 소설의 작품성을 고찰해 보는 것으로 소설사적 의의를 찾겠다.

1) 역사의식의 양분화를 체험하는 소설의 두 반응 —『썩트는 대지』

『썩트는 대지』는 강덕 8년(1941년) 11월 新京특별시에서 간행된 만주조선인 작품집이다.

25) 오양호, 「박계주론」 참조(『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4).

만선일보사 출판부에서 간행한 이 소설집에는 김창걸의 <암야>,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 신서야의 <추석>, 안수길의 <새벽>, 한찬숙의 <초원>, 현경준의 <유맹>, 황전의 <제화> 등 7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다. 서문은 염상섭이 썼고 『『짜트는 대지』 뒤에』란 권말 후기는 편자인 申鑿徹이 썼다.

김윤식은 『안수길 연구』(1986)에서 『짜트는 대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 망명문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짜트는 대지』를 낼 무렵엔 이러한 생각이 조금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선일보>의 테두리 속에서의 망명문학이란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짜트는 대지』에 실린 현경준의 『유맹』을 비롯, 안수길의 『새벽』 후속작인 『새마을』에 오면 노골적인 만주국 정책수행을 위한 작품에 속하는 것이다.²⁶⁾

<만선일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김윤식의 이런 의문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논증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만주국이라는 것이 일본 군부의 허수아비 국가인데 어찌 <만선일보>가 조선의 민족정신을 담은 존재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선일보>가 만주국 홍보처의 감독 아래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창설된 언론기관이란 성격을 전제로, 이 신문의 문예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채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1940년 <만선일보> 신춘문에 현상 모집에 일등으로 당선된 金鎭秀의 <이민의 아들>과 같은 소설은 일찌기 만주에 들어온 농민이 정착촌을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권선생이 이런 일을 선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은 학교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지식들을 농사일에만 열중케 한다. 하지만 그 2세는 다르다.

백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모다들 선생님 선생님 하고, 추스그러주니 쟁 아주 큰 벼슬이나 헛는 줄 알고 카지만 다 넷날에는 선생님이 다 머고... (중략)...

26) 金允植, 『안수길 연구』(정음사, 1986), p.50.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선생은 글도 아주 잘 알고 공부도 역시 해서 아주 조흔 선생님이라 카든대」
 「누가 그런 말을 한다카든노, 어이 누가개. 그누무 자식한테 한번 물어보자」²⁷⁾

배덕순이라는 무지한 농민과 그의 아들 돌바우가 학교선생을 놓고 대립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개명했고, 그 아들은 선생을 따르고 있다. 주인공 권선생은 이런 2세를 지도하고 가르쳐 그들이 집을 쫓 TSC들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다.

사정이 이런한데 ‘만주에 있어서의 조선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 국민문학, 친일문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란 논조로 몰아 세우는 것은 양자택일적 극단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염상섭과 신형철은 『썩트는 대지』의 서문과 후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만주에서의 문학운동의 효시를 어찌 두어야 옳을 것인지, 또 널리 개척사상 불만한 문헌이 있는지 나는 과문하여 아지 못하거니와, 이번 이 간행은 오죽 출판기념으로만 본다하여도 만주에 있는우리로서는 실로 획기적 사업이 아닌가 한다. …(중략)… 그러나 그 어느 작품에서나 만주의 흥내 안남이 없고, 조선문학의 어느 구석에서도 ……²⁸⁾

우리는 감히 문화부대라 자처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우며 참월한가 합니다. 우리들의 분자난이 성스럽고 진지한 선견대인 선재동포의 혈투점철한 개척사에 비하면 얼마나 험기이며 거의 유희에 가까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단편적으로나마 역거 후일에 고집삼음이 있스려면 역시 우리 손의 거침이 업고는 영원히 인물해 버리고 말 저어함도 업지 않습니다.²⁹⁾

서문에 나타나는 것은 개척민의 기록, 만주 이민문학의 효시, 신만주의 협화정신과 국민문학 등의 문제이고, 후기에서는 주로 이 소설집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이다. 이런 점을 우선 이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들의 테마를 통하여 고

27) 金鑣秀, <移民의 아들>, 제3회 연재 분(1940. 9. 14. 토).

28) 염상섭, 『썩트는 대지』(만선일보사, 1941, 新京), p.1.

29) 申螢徹, 같은 책, 「『썩트는 대지』 뒤에」.

찰해 보자.

해당되는 작품은 <새벽>(안수길), <제화>(황건), <초원>(한찬숙)이다.

<새벽>은 이농민의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딸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쓴 창북이네는 그걸 갚지 못할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이미 혼인 약속을 한 총각이 있는 북동예는 얼뜨놈의 후실로 갈 수가 없다고 결심하고 자살한다.

결구가 피비린내 나는 광기로 가득 찬 이 소설은, 조선사람이지만 동족을 못 살게 구는 박치만과, 소금 밀매라도 해서 살아 가겠다는 창북이네와, 지팡살이 하는 이주민의 딸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관계를 이루는 작품이다.

황건의 <제화>는 1인칭 시점의 서간체 형식이다. 주인공이자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만주로 이민을 온 지식 청년이다. 1920년대 말 지식인 소설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문화 청년회의 지도자인 '나'는 만주에서의 문화활동이 어렵게 되어 가는 형세를 보고 절망에 빠져 있던 중 그 임원들이 대판 싸움을 벌이자 그도 가담하게 된다. 그 결과 문화 청년회는 해체되고, '나'는 여회원 기주와 가깝게 된다. 그래서 절망에서 겨우 벗어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문화 청년회의 성격과 그들이 대립하는 갈등의 원인이다. 문화 청년회는 만주국의 문화부 창설시부터 추진되어 오던 단체이다.

한찬숙의 <초원>은 앞의 작품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작품이다. 이 소설은 몽골족과 조선족 간의 화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인공 마루도는 몽골의 깊은 초원 하이라루에서 동북쪽으로 한 오십 리 가량 들어간 파잉쿨이라는 동네에서 양을 치는 처녀이다. 그는 작년 여름에 어머니를 여의었기에 어린 두 동생을 기르며 살림도 해야 하는 처지이다. 초원에 떠오르는 몽개구름을 쳐다보며 돌변이나 치고 처녀의 꿈을 삭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오늘은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기공서에서 축산 주임으로 일하는 임봉익이라는 조선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뿐 아니라 이 청년은 옷까지 선물로 내놓지 않는가. 임봉익과 마루도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고, 그것은 몽골의 끝없는 초원과 자연 속에서 익어간다. 그러나 봉익은 자신에게는 원시생활을 하는 몽골족을 위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흑산두란 오지로 진출을 간다. 마루도도 봉익을 뒤따라간다.

조선족과 몽골족 간의 애정문제를 다룬 이런 소설의 배경에는 만주국의 건

결과 함께 이루어졌던 당시의 한·몽 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당시의 일본은 만주국을 발판으로 하여 몽골을 포함한 대륙 전체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정책을 펴가고 있었다. <초원>은 그러한 시대적 추세와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우리민족은 물론 만주족, 몽골족까지 한 덩어리가 되고 화합하여 동양 평화와 영화를 실현하자는 게 당시의 일본이 내세우던 바로 그 오족협화 정신이 아니었던가.

2) 대륙에 내린 뿌리, 또는 대륙 입적기 —『북향보』

간도에서 출판된 소설은 아니지만, 간도 등 일제 강점기의 만주 이민을 문제 삼고 있는 안수길의 대하소설에 『北間島』(1959~1967년)가 있다. 주지하듯이 이 소설은 벌써 발표 당시 “해방 뒤 십여 년 래의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작품”, 혹은 ‘기념비적인 노작’이라는 평을 받았고, 지금도 이 작품이 민족의 수난과 그를 극복하고 살아나려는 이농민의 의지를 형상화한 민족 문학의 대표작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북간도』에서 우리는 선주민 주인공 이한복이 두만강을 건너가 농사를 짓다가 관가에 적발되어 문초를 당하자 “강 건너는 우리 땅입메다. 우리 땅 건너가는기 무시기 월강뺨메까?”하고 부사에게 대어드는 감동적인 장면을 도입부에서 대한다.

안수길의 간도 배경의 소설은 이런 역사성을 띤 민족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北鄉譜』는 1944년 12월 1일부터 1945년 7월 4일까지 『만선일보』에 연재된 안수길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조국 광복 때까지 한글로 발행되어 재만한인의 유일한 언론 기관 역할을 했던 『만선일보』에 139회까지 연재된 이 소설은 필자가 제26회 전국국어국문학 발표대회에서 소개하기 전까지는 학계에 작품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연재되었던 소설의 스크랩과 개작된 원고가 유족들에 의해 보관되어 왔다. 필자가 입수한 『만선일보』 연재본 스크랩에는 추고, 가필, 정정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예를 들면 「계획과 실제」란 소재목의 10회 연재 부분이 「도장 설계」, 「깨끗한 일생」 등으로 고쳐진 제목하에 있었고, 「친구의 집에서」 2회분이 「유혹」으로, 「거듭하는 감격」 4회분이 「모내기」란 제목으로 바뀌었다.

『딸의 도리』 2회분과 『조선의 종달새』 4회분, 『재출발』 1회분은 소제목만 나와 있었다. 그의 여러 지문에 손을 대어 문맥을 고친 자취가 있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개작 『북향보』는 2백자 원고지로 1천 1백 46매로 정리되어 있고, 스크랩에서 빠졌던 부분이 모두 채워져 있다. 특히 대단원 부분의 鄭愛羅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게 처리된 점이 눈에 띈다. 스크랩에서 지워졌거나 개작된 부분은 그런 시대 긍정적인 것이 민족문화적인 문맥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작의 이런 점을 보고서야 우리는 이 소설이 왜 지금까지 그의 초기 소설과는 달리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유족들마저 공간을 미루어 왔던가를 깨닫게 된다. 그들은 이 소설이 비민족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북원』 창작집에서 『북간도』로 이어지는 안수길 문학의 전 흐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그런 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1940년대 만주 및 간도에 있어서 한국인은 국적이 만주국이었다. 민족은 한 민족이면서 국적은 만주국이었고, 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인이었기에 이주해 온 땅에서도 그들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만주국은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였으니 만주국의 보호란 것은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 민족을 홀려둔 유랑 민족으로 무시하고 적대시하였다. 이런 처지는 우리 이민에게는 국권 상실, 유랑, 또 한번의 간섭받음이란 점에서 삼중고의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다. 1945년 만주 및 간도 거주 한국인의 수는 2백만을 넘었고 일본은 만주를 대동아 공영권의 신개척지로 생각하고, 만주 개척을 전국가적 차원에서 밀고 나갈으로써 이민한 조선인들을 그들의 신민으로 만들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민들은 만주와 간도를 신개척지라 생각하고 계속 몰려왔고 만주국은 그런 한국의 이민을 만주국의 국민으로서 받아들였는데, 그 한편에는 그들을 교화시켜 대동아공영권의 전위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다.

6.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만주란 지리적 공간이 우리의 민족 정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만주는 민요 <신아리랑>에서는 ‘북간도 별판이 좋다더라’로 나타났다.

둘째로 亡命文學과 移民文學의 개념에 주목했다. 이 두 문학은 다 같이 조국을 떠난 이민들이 타국에서 모국어로 창작한 자국 문학인데, 전자는 국권 회복을 전제로 한 작품이고, 후자는 이민간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문학임이 <낙동강>(전자)과 『싹트는 大地』, 『在滿朝鮮詩人集』, 동인지 『북향』 등(후자)을 통해 고찰했다. 전자의 작가로는 조명희, 이육사, 윤동주 등이고, 후자의 작가로는 안수길을 위시한 당시의 유무명의 재만 문인들이다.

셋째로 이 논문은 1930년대 말기부터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만주·간도의 이민 모티프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로 드러나는 모티프의 다발은 北方은 곧 流氓의 땅이란 인식이다. 이런 문제는 당시의 많은 민초들이 살길 찾아 택하던 북방행의 현실과 연결된 시의식이고, 대표 시인은 오장환, 이 찬, 이용악 등이었다. 한편 이런 작품군은 유독히 여인으로 상징되는 민족의 流民化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했던 민족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도 알았다.

1940년에서 1945년 8·15까지의 한국소설사를 압축기, 친일문학기, 비양식의 문학기라는 문학일반사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시의 소설현상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이것은 동인지 『北鄉』 이후 합동소설집 『싹트는 대지』(1941), 안수길 창작집 『北原』(1944), 金鎮秀의 『이민의 아들』(1940), 안수길 장편 소설 『北鄉譜』(1945) 등 지금까지 밝혀진 문학 일반의 자료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 소설사적 자리 매김은 『이민의 아들』 『싹트는 대지』 『북향보』의 검토를 통해 그 구체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민의 아들』은 진보적 이민 2세대가 이민 1세대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점이 드러났다.

『싹트는 대지』는 1940년 재만 지식인들의 역사의식의 두면, 곧 시대의 논리가 순응과 거역의 양태로 드러나는 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창작집이 가지는 문학적 의의를 검토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반도 안에서의 민족문학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가를 생각할 때, 살아 있는 모국어로 소설을 쓰며, 모국어를 통하여 민족의 고난사를 전하고, 새 땅을 찾아간 후일담만으로 문학적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북향보』는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그 거리를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대립과 꺾임으로 주제를 형상화 한 작품이 아니라 등장 인물들의 변모와 현장의 실상을 정공법의 논리를 통해서 좁힘으로써 주제를 다듬어 낸 작품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법은 당시 검열제도를 의식하고 민족이민의 현장, 그 자체를 모두 수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적인 것도 친일적인 것도 드러내놓고 택할 수 없었던 시대 사정으로 보았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다.

이밖에 염상섭의 <開東>, 박영준의 <雙影>, 그리고 『채만수필집』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지고 그 문학성이 1930년대의 한국문학과 지속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문학은 역사의 이중성을 체험하는 변뇌의 시기라는 다른 논리로도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ssues of Studies on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in the 1940's

Oh, Yang-Ho

In this article, I first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that geographical space called Manchuria to the emotional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In the folksong, "New Arirang," Manchuria appears as a benevolent place, a place of hope, a new world.

Next, I noted that, as represented in the Collection of *Manchurian poetry*, the main trend in Manchurian immigrant literature in the 1940s was to transform the realities of immigration to Manchuria into a motif of wandering and the wanderer, relying on escapist images to do so.

Third, I focused on the concepts of exile literature and immigrant literature. Both of these literatures are part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immigrants living abroad. We saw in our examination of "Naktong River" that the former is premised upon the recovery of Korean national sovereignty and we also observed in *The Burgeoning Earth, An Anthology of Poetry by Koreans in Manchuria* and the journal, *Northern Country* that the latter is the literature of those who began a new life and put down roots in the new country. Writers who belong to the former category, exile literature, are Cho Myŏng-hŭi, Yi Yuksa, Yun Tong-ju and those who belong to the latter, immigrant literature, are many contemporary literary figures in Manchuria, both famous and anonymous, including An Su-gil.

Lastly, the poetic consciousness, encountered after a series of motifs such as departure, wandering, and lamentation, is the national consciousness. As images of rivers, sunsets, and departures disappear, the forgotten homeland

appears in bright and hopeful images. Yu Ch'i-hwan despaired, Kim Cho-gyu wandered around and So Chong-ju did not find a name to call at the last. In Manchuria, Kim Tong-hwan sang the boatsong of Songhuajing River, and Yi So-hae departed with the sun which set on the banks of the Tuman'gang and Amnok Rivers. These all portend the future open world, finally discovered in the motifs of the Manchurian destination in the 1940s.

I set out to prove in this article that there was indeed a strong output of Manchurian immigrant literature in the early 1940s and that literature depicts with startling poignancy the many phases of the emotional life of those Koreans who left their homeland for the Northern Country. I defined those phases through examining the types of imagery and the changes in them in several works which were written and published during the period. I noted how the works were received at that time of publication and what was happening both in Korea and to the authors at the time they wrote these works. I hope that in doing this, I have convincingly demonstrated that when we examine these works in the contexts of their period, we are able both to reaffirm and to more accurately comprehend the depth of Korea's literary legacy of the 1940s only if we rightly include all of Korea's Manchurian and Kando literature in that legacy.